

전남 농수산물 수출액 역대 최고

3분기까지 3억9000만달러

지난해보다 19.3% 늘어

배추 등 신선 농산물 45% ↑

김·전복 등 수산물 8.5% 증가

올 들어 전남도의 농수산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3% 늘어난 3억9000만 달러를 기록,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최근 5년간 전남 농수산물 수출액은 2016년 3억2000만 달러 2017년 3억5000만 달러, 2018년 3억9000만 달러, 2019년 4억5000만 달러, 2020년 4억6000만 달러로 꾸준히 늘었다.

보다 45.6% 증가한 3800만 달러, 농수산물 분야는 유자차, 음료 등의 꾸준한 성장세에 전년(6100만 달러)보다 34.1% 증가한 8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축임산물 분야는 분유와 오리탈의 판매 확대로 전년(4300만 달러)보다 31.5% 증가한 5700만 달러, 수산물 분야는 김, 전복, 미역 등 전통적 효자상품의 선전으로 전년(1억9800만 달러)보다 8.5% 증가한 2억1500만 달러를 달성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8400만 달러로 20.8%, 중국이 6200만 달러로 35.3%, 대만이 2900만 달러로 19.1%, 러시아가 100만 달러로 139% 각각 늘었다.

미국은 김 5400만 달러로 17.3%, 배 280만 달러로 22.7%, 전복 250만 달러로 92.7%가 증가하는 등 농수산물과 수산물이 고른 수출 호조를 보였다. 중국은 분유 2600만 달러로 99.1%, 유자

차 600만 달러로 16.9% 증가했고, 대만과 러시아는 각각 오리탈 1600만 달러로 79.8%, 김 1000만 달러로 89.0%의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일본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사태 선언과 지자체의 외식업체 영업시간 단축으로 7.1% 감소한 9900만 달러에 그쳤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역대 최고 수출액 달성 요인은 세계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아마존 브랜드관 확대, 미국 월마트와 코스트코 추가 입점 등 새로운 판로 개척, 신남방·신북방 등 수출선 다변화 정책의 결과"라며 "전남 농수산물 수출기업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도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전체 수출액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53.3% 증가한 307억 달러를 기록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테크노파크, 부산 '조선·해양산업전' 공동관 운영



전남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1년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KORMARINE)'에 참가해 전남공동관을 운영했다.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은 국내·외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최첨단 장비 및 신기술의 발전상을 볼 수 있는 세계 5대 국제전시회다. 올해 처음으로 정상 개최된 조선·해양 부문 국제 전시회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등 10개 국가와 다국적 글로벌 기업인 ABB, 바르질라, 에머슨, 보쉬, GE, MTU, WING&D 등 30개국 700여개사가 참가했다. 전남테크노파크 조선산업지원센터는 (주)스펠스엘텍, 주식회사 마스터볼트코리아, 유한회사 광동이엔지, 한국기술화학(주) 등 전남도내 조선해양산업내 기술유망기업 4개사와 함께 참가했다. <전남테크노파크 제공>

송광사 쌍향수·옛 도청 은행나무 등 72그루 '후계목' 증식 한창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삼목·점목·종자 번식 연구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천연기념물과 도 지정기념물에 대해 유전 자원의 체계적 보존을 위한 '후계목' 증식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지역 천연기념물 중 일부 수목은 수령이 오래돼 수세가 약해져 고온과 가뭄, 병해충이나 태풍 피해 등 각종 자연재해에 소실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천연기념물로서 가치와 역사성을 감안, 후계목 증식에 나선 것이다.

후계목 증식 연구는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송광사 쌍향수 곱향나무(사진) 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목류 19종 45그루와 순천 낙안읍의 은행나무 등 도 지정 기념물 13종 26그루를 비롯해 옛 전남도청 앞 은행나무까지 전통문화와 스토리가 있는 전남의 대표적 나무의 후계목 증식·보존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오랜 역사 속 도민 삶과 함께해 온 천연기념물의 수목 유전자원 확보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



지만, 전해 내려오는 나무에 얽힌 이야기는 문화 콘텐츠로 발굴해 후대까지 이어가야 할 소중한 문화자산이다.

후계목 증식사업으로 가장 우선해 선정된 송

광사 천자암 쌍향수는 고려시대 보조국사와 담당국사가 중국에서 돌아올 때 짚고 온 향나무 지팡이를 나란히 꽂은 것이 자랐다는 전설이 있는 나무다. '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절을 하는 듯 예의 바른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미담으로 전해진다. 아름답뿐만 아니라 스토리도 있어 천연기념물로서 가치를 더한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이같은 수목의 유전형질을 그대로 이어받도록 지난해 6월부터 삼목과 점목 등 방법을 통해 우선 증식하고 종자 번식도 함께 하고 있다. 문화재청과 시군 문화재 관련 기관의 승인을 통해 1차 증식을 완료한 상태다. 오득실 소장은 "나무 대부분이 나이가 많고 잎 짙기·종자 채취도 극히 소량으로 제한돼 있어 증식에 어려움이 있지만, 천연기념물의 가치를 되새기고 도민과 함께해온 역사를 미래 세대와 공유할 중요한 매개체가 되도록 후계목 증식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증식에 성공한 후계목은 생육 상황을 감안해 오는 2024년까지 전남산림자원연구소와 별도의 공간에 후계목 기념숲을 조성해 불거리와 교육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동부권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업무협약

전남도·순천시·전남도시가스

전남도는 지난 21일 순천시청에서 김신남 에너지산업국장, 김은규 전남도시가스 대표, 임재영 순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동부권의 친환경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소산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순천시, 전남도시가스는 2023년까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구축 등을 위해 공동 협력한다.

전남도시가스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LNG)를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6개 시군 16만여 가구에 공급하고 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출촌 지방산업단지, 해룡산업단지 등 신산업단지에 천연가스 공급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수소연료전지발전은 기존 화석

연료의 연소반응을 이용하는 발전방식과 달리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에 의해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고효율·친환경 발전 시스템이다. 발전소 소음이 적고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도심 속 분산형전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맞춰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청정에너지 수소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동부권의 부생수소를 활용해 단기적으로는 그레이수소와 블루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내 대규모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전주기 그린수소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해상풍력과 그린수소 생산을 연계하는 '에너지 섬'을 동부권·서부권에 구축할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남도가 겨울철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깨끗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12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인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50µg/m³ 이상 ▲다음날 평균 농도 50µg/m³ 이상 예측 등 상황이 발생하면,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다. 위반

차량은 3회 경고 후 4회부터 과태료 10만 원(1일 1회)을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은 시군 주요 도로변 86개 지점 102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로 이뤄진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행제한을 하지 않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국제농업박람회, 디지털농업 첨단기술 전시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 선보여

2021 국제농업박람회가 디지털농업 첨단기술을 선보이며, 농업인에게 미래농업의 방향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26일 2021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농업의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농촌진흥청이 스마트농업1관에서 디지털 농업기술 21종을 전시하고 있다.

주요 첨단 기술은 미래농업의 대안 마련을 위해 빅데이터·AI 기반으로 개발한 농장 맞춤형 기상재

해 조기경보시스템, 가축 사육 기상정보 시스템, 과수 생육 품질관리 시스템, 토양환경정보시스템, 출도탐, 미래기후 대응 병해충 잡초 정보제공 시스템 등이다. 또 작물의 생육 및 비료량을 예측할 수 있는 작물생육측정드론, 농기계의 안전교육을 위한 트랙터·경운기 시뮬레이터 등도 포함됐다.

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현장 활용 장비로 개발한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이 결합한 관개시스템, 자율주행 농기계와 발농업 기계화 기술, 이동형 디지털 공중포집기, GPS 기반의 자율주행 로봇방제

기, 해충을 유인하여 포획하는 디지털 트랩 등이 전시하고 있다.

축산 분야 디지털농업 기술로 돈사를 관리 운영하는 스마트 돈사, 닭의 무게를 영상으로 측정하는 육체측정예측시스템, 자율주행 방식으로 밭일을 자동 살포하는 오리 깔짚 자동살포기 등도 찾아볼 수 있다.

이밖에도 치유농업기술인 스스로 물 만드는 화분, 수직정원, 공기정화식물, 곤충을 이용한 심리치유 기술 등을 소개해 첨단기술을 이용한 농업의 다양한 활용 기술을 선보여 관람객들로부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남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산맥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남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시산맥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